

우울 증상과 사회적 기술이 스트레스 생활사건에 미치는 영향*

김 영 란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정신과

이 영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우울증이 스트레스 사건을 예측한다는 스트레스 유발 가설과 스트레스 유발 과정의 기제로서 사회적 기술이 우울과 스트레스 사건 간의 관계를 증대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각 연구대상자를 1개월에 걸쳐 2회 측정하는 단기 종단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학생 224명을 대상으로 주요 스트레스 사건, 우울 증상,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였으며, 교차지연 상관패널 분석, MANOVA,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가 1개월 후의 우울 증상을 예측하였고, 우울 증상이 1개월 후의 스트레스를 예측하였다. 둘째, 각 참가자들이 1개월 동안 경험한 스트레스 사건을 사건의 발생에 자신이 원인을 제공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독립적 사건과 의존적 사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독립적 사건에 있어서는 우울집단과 정상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우울집단이 정상집단보다 더 많은 의존적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 증상의 세 가지 하위요인(부정적 태도, 수행결함, 신체증상)이 스트레스 사건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검토한 결과, 수행결함이나 신체증상보다 부정적 태도가 스트레스 사건의 유의한 예언 요인이었다. 넷째, 스트레스 유발 기제로서 사회적 기술의 중재효과를 검토했을 때, 사회적 기술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표현성 및 정서적 조절성, 사회적 표현성, 사회적 조절성이 우울 증상의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영향을 조절하는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임상적 함의와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우울증, 스트레스 사건, 사회적 기술, 스트레스 유발 가설

* 본 연구는 2007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영호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 산 43-1
Fax : 032-345-5189 / E-mail : yhlee@catholic.ac.kr

우울증과 스트레스 사건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스트레스 사건이 우울증을 예측한다는 일방향적 인과관계를 검토했다. 이러한 일방향적 인과관계에는 스트레스 사건이 우울증에 선행하며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되는 것이 우울증의 위험률을 높인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 Mazure(1998)와 Kessler(1997)가 20여 개의 연구를 개관한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과 스트레스 사건 간의 강한 연관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역기능적 생활 경험과 그 이후의 주요 우울증 간의 관계에 대한 강한 증거”(Mazure, p. 291)를 제공하고 있다.

스트레스 사건과 우울증 간의 일방향적 인과관계를 증명해 보이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우울증상이 스트레스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방법론적 소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역방향의 인과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스트레스 사건을 독립적 스트레스 사건(independent stressor)과 의존적 스트레스 사건(dependent stressor)으로 구분하는 전략을 이용했다(Brown & Harris, 1978). 독립적 스트레스 사건과 의존적 스트레스 사건의 구분은 우울한 사람들의 행동이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른 것으로, 독립적 사건은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이사, 천재지변 등과 같이 사건의 발생이 우울한 사람의 행동과 관련 없이 외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의존적 사건은 대인관계 갈등이나 재정문제 등 우울한 사람들의 행동이 일부분이라도 그 사건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스트레스 사건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사건이 우울증을 예측하는 일방향적 인과관계를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우울한 사람들의 행동과 관련 없이 일어나는 독립적 사건만을

포함시켜 우울증이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에 미칠 수 있는 혼입효과를 통제함으로써 스트레스 사건이 우울증을 초래한다는 가설을 더욱 엄격하게 검증했다.

반면에 스트레스 유발 가설은 Hammen(1991)이 경험적 연구에 근거해서 제안한 가설로, 우울증이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을 예측한다는 반대 방향의 인과성을 검토해서 스트레스 사건과 우울증 간의 양방향적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이론이다. Hammen은 단극성 우울장애 집단과 양극성 장애 집단, 만성 신체질환 집단, 정상인 집단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이들이 이후에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을 비교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특징적인 것은 독립적 사건에 있어서는 네 집단이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의존적 사건과 의존적 사건의 하위범주인 대인관계 갈등 사건에 있어서는 단극성 우울장애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로부터 Hammen은 우울한 사람들이 외적으로 주어지는 스트레스 사건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건의 발생에 기여함으로써 스트레스 사건을 더 많이 유발한다고 제안했다. 스트레스 유발 가설은 우울증 환자, 대학생, 후기 청소년기 여학생,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 등 다양한 임상 및 비임상 표본에서 반복 검증 되었다(예, Adrian & Hammen, 1993; Chun, Chronkite, & Moos, 2004; Davila, Hammen, Burge, Paley, & Daley, 1995; Joiner, Wingate, & Oramendi, 2005). 또한 우울한 사람의 어떠한 특성이나 행동이 스트레스 사건을 발생시키는가, 즉 스트레스 유발의 예연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연구에서 유전요인이나 가족요인, 혹은 신경증(Kendler, Karkowski, & Prescott, 1999), 우울증의 과거력이나 공병과

같은 임상적 요인(Harkness & Luther, 2000), 부정적 인지양식(Simons, Angell, Monroe, & Thase, 1993)과 무망감(Joiner et al., 2005) 등의 인지적 요인, 사회적 의존성(sociotropy)과 자율성(autonomy) 등(Daley, Hammen, Burge, Davila, Paley, Lindberg, & Herzberg, 1997)이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기존의 스트레스 유발 가설 관련 연구들은 스트레스 사건을 독립적 사건과 의존적 사건으로 나누지 않고 우울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가진다는 것을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스트레스 유발 과정에 기여하는 요인으로서 대인관계 관련 요인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우울한 사람들이 스스로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만들어나가고 이를 통해 우울증의 지속과 심화에 기여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얽매이게 된다는 스트레스 유발 가설의 중요한 함축을 간과 한 것이다. 소수의 연구들이 대인관계 문제해결 기술(Davila et al., 1995)이나 배우자의 사회적 지지(Davila, Bradbury, Cohan, & Tochluck, 1997), Coyne(1976)이 우울한 사람의 문제 행동으로 제안한 과도한 재확인 추구(reassurance seeking) 행동(Pothoff, Holahan, & Joiner, 1995) 등의 대인관계 관련 요인을 다루고 있지만, 이 요인들이 우울증과 연관되어 스트레스 사건을 유발 시킨다기보다 우울 증상과 독립적으로 스트레스 사건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침으로써, 스트레스 유발 가설이 우울증 연구에서 가지는 의의를 간과했다. 이와 더불어 스트레스 유발 가설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각기 다른 우울증상이 스트레스 사건에 미치는 차별적인 효과는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울증이라

는 정신병리가 매우 이질적인 증상 및 특성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각각의 우울 증상이 스트레스 사건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가 검토 하는 것은 우울증과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의미 있는 작업 일 수 있다.

우울증에 관한 스트레스 유발 가설은 우울한 사람들이 이후에 더 많은 의존적 사건과 대인관계 갈등 관련 사건을 경험한다는 것으로부터 우울한 사람들이 스스로 부정적인 환경적 맥락을 만들어나간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울한 사람들의 역기능적 대인관계 맥락은 기존의 우울증 연구에서 일관되게 밝혀졌던 결과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은 Coyne(1976a)의 상호작용 모델(interactional model)이다. Coyne (1976a)은 이전의 우울증 연구가 우울한 사람 개인에만 초점을 맞춰왔으며 우울한 사람들이 사회적 환경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지를 간과해 왔다고 비판하며, 정신내적 요인(intrapsychic factors) 뿐만 아니라 대인간 요인(interpersonal factors)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우울증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이론이었던 인지이론은 외부 환경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의 인지적 왜곡을 강조하였으나,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우울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은 스스로 만들어낸 부정적인 대인관계 맥락으로부터 나오는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 현실적인 것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역기능적 대인관계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우울한 사람들의 문제 있는 행동으로 Coyne은 과도한 재확인 추구를 제안했다. 과도한 재확인 추구란 우울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타인으로부터

확신을 얻고자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울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확신을 구하고자 하지만, 그러한 요구에 대해 타인이 지지를 제공해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과도하게 끊임없이 위로와 안심을 요구하여 타인을 지치게 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Coyne의 상호작용 모델은 우울한 사람과 상호작용하도록 요청받은 실험 참가자들(Coyne, 1976b), 우울한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Coyne, Kessler, Tal, Turnbull, Wortman, & Greden, 1987), 배우자(Benazon & Coyne, 2000)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되었고, Coyne이 제안한 재확신 추구 행동도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Benazon & Coyne, 2000; Joiner & Metalsky, 1995; Segrin & Dillard, 1994). 국내 연구에서도 우울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결혼생활 불만족도가 높으며 부정적 상호작용이 높고 배우자가 제공하는 안전감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권정혜, 2002). 그러나 Segrin 등(1994)의 메타분석 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우울한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 과도한 재확신 추구 행동과 이로 인한 타인의 거부를 이끄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우울한 사람들이 스스로 역기능적 대인관계 맥락을 만들어어나가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한 사람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만들어나가거나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맥락을 구성해나가는 데 있어서 낮은 사회적 기술이 하는 역할을 검토할 것이다. 대인관계 관련 요인으로 낮은 사회적 기술을 검토하는 이유는 많은 우울증 연구에서 우울증과 낮은 사회적 기술의 관계가 일관되게 밝혀져 왔기 때문이다. Lewinsohn(1974)의 행동주의적 강

화이론을 비롯해서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우울과 낮은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는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이는 우울한 사람 자신의 자기보고(Dow & Craighead, 1987)나 관찰자 평정(Lewinsohn, Mischel, Chaplin, & Barton, 1980)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된 결과이다. 국내에서도 임승락과 권정혜(1998)의 연구는 우울과 부부 간의 부정적 의사소통이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Segrin과 Abramson(1994)은 직접 의사소통 이론에 근거해서 우울한 사람의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우울한 사람들의 사회적 기술 결함이 의사소통 문제와 관련됨을 직접적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는 사회적 기술 측정도구를 사용해서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사회적 기술의 결함으로 인해 스스로 스트레스 사건을 발생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것이다.

요약하면, 우울증에 관한 스트레스 유발 가설과 상호작용 이론이 함축하는 바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주어지는 스트레스 사건인 독립적 사건과 자신이 그 사건의 발생에 일부분이라도 기여한 의존적 사건을 나누어 우울 증상과 스트레스 사건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이와 함께 대인관계 관련 요인이 스트레스 유발 과정에서 하는 역할을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단기 종단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 사건이 1개월 후의 우울 증상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우울 증상이 1개월 후의 스트레스 사건을 예측함을 보일 것이고, 참가자들이 1개월 동안 경험한 스트레스 사건 중 독립적 사건에 있어서는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 간의 차이가 없지만 우울집단이 비우울집단에 비해 보다 많은 의존적 사건을 경험함을 검증할 것이다. 또한 앞

서 언급했듯이 우울증이 각기 다른 증상들의 집합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어떤 우울 증상이 스트레스 사건의 유의한 예언변인인지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관련 요인으로 우울한 사람의 낮은 사회적 기술을 검토하여, 사회적 기술의 부족이 어떻게 우울한 사람들의 대인관계 맥락을 부정적으로 형성하고 우울 증상을 지속시키는 데 기여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수도권에 위치한 C대학과 E대학에서 심리학 교양수업 또는 철학 교양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기 1에 참여한 학생들은 284명(여자 203명, 남자 82명)이었으며, 이들 중 시기 2에도 참여한 학생들은 224명(여자 165명, 남자 59명)이었다. 참가자의 평균연령은 21세(표준편차 2.18)였다.

측정 도구

대학생 스트레스 사건 경험 질문지

이평숙(1984)이 제작한 것을 이영호(1993)가 대학생에게 해당되는 부정적인 사건들로만 재구성한 것으로 총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난 1개월 간 경험한 스트레스 사건을 보고하도록 한 질문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울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의 특징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의 특징이 다르고, 우울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적응적인 행동과 특성을 통해 더

많은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는 데 있으므로, 사건의 발생에 자신이 원인을 제공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독립적 사건과 의존적 사건을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참가자가 각 문항에 대해 사건의 발생에 자신이 몇 퍼센트나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보고하도록 해서 독립적 사건과 의존적 사건을 구분하고, 각 참가자별로 참가자가 구분한 것과 문항 내용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나눈 것이 차이가 큰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자 이외에 임상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과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에 있는 수련생, 두 사람이 독립적 사건과 의존적 사건의 구분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고 일치하지 않는 문항은 합의에 의해 새로 평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연구자가 구분한 것과 대학원생이 구분한 것은 84%의 일치도를 보이고 연구자가 구분한 것과 수련생이 구분한 것은 87%의 일치도를 보여, 두 사건의 구분이 대체로 신뢰롭고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Beck 우울증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 Ward, Mendelson, Mock, 그리고 Erbaugh (1961)가 개발한 BDI를 이영호(1993)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1문항 0~3점 척도이며 내적 합치도가 .85로 밝혀져 있다. 본 연구에서 시기 1의 총점범위는 0~33점이고, 평균 10.5점, 표준편차 6.7이었고, 시기 2의 총점범위는 0~38점으로 평균 9점, 표준편차 6.9였다. 시기 1과 2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4, .86이었다. 김정호 등(2002)이 국내 정신과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확인한 바 있는 Byrne과 Baron (1993)의 위계적 3요인 모형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을 때, 세 가지 요인인 부

정적 태도와 수행의 어려움, 신체적 증상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시기 1에 .78, .73, .54이었고, 시기 2에 .81, .78, .53이었다.

사회적 기술 척도(Social Skills Inventory: SSI)

Riggio(1986)가 개발한 사회적 기술척도(Social Skills Inventory: SSI)로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90문항으로 5점 척도이며 내적 합치도가 .84이다. 이 척도는 의사소통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비언어적 메시지를 보내고 해석하고 조절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정서적 표현성, 정서적 민감성, 정서적 조절성)과 언어적 메시지를 보내고 받아들이고 조절하는 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사회적 표현성, 사회적 민감성, 사회적 조절성)의 6개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기술의 내적 합치도는 .84이며, 각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정서적 표현성, 정서적 민감성, 정서적 조절성이 각각 .70, .72, .77, 사회적 표현성, 사회적 민감성, 사회적 조절성이 각각 .84, .81, .76이었다.

절 차

1차 설문 실시 후 약 1개월 후에 2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시기 1에는 대학생 스트레스 사건 경험 질문지, Beck 우울증 척도(BDI), 사회적 기술 척도(SSI)를 실시하였으며, 시기 2에는 시기 1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질문지인 대학생 스트레스 사건 경험 질문지, BDI를 실시하여, 1차 설문 실시 후 1개월 동안 새로 경험한 스트레스 사건과 지난 2주간의 우울 증상을 측정하였다. 설문지에 전공과 핸드폰

번호를 기입하도록 하고 그것을 대조하여 동일참가자를 확인하고 시기 2에 참여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1개월이라는 간격은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설정한 것이다. Alloy, Harlage와 Abramson(1988)의 제안에 따르면, 우울증과 스트레스 사건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너무 짧을 경우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1개월 이상으로 너무 길 경우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기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근거로 이들은 1개월을 적합한 간격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 1개월의 간격을 두고 종단 연구를 하였다.

자료 분석

우울 증상과 스트레스 사건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교차지연 상관패널(cross-lagged correlation panel)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시기 1에 우울집단으로 선별된 집단과 정상집단으로 선별된 집단이 시기 2에 각각의 스트레스 사건(독립적 사건, 의존적 사건, 대인관계 갈등 사건)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시행하였다. BDI 하위 요인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각 하위요인을 확인한 후, 단계적(stepwise) 회귀분석을 통해 각각의 하위요인이 스트레스 사건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술의 중재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hierarchical) 중다회귀 분석을 시행하여 시기 1의 우울 증상과 사회적 기술의 상호작용이 시기 2의 스트레스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통계검증을 위해 SPSS 15.0과 AMOS 7.0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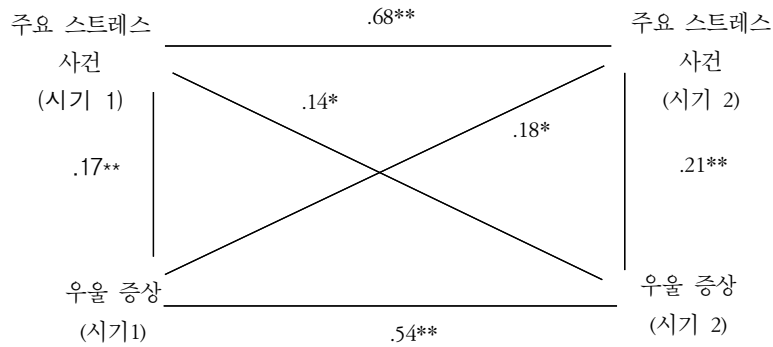


그림 1. 주요 스트레스 사건과 우울 증상 간의 관계에 대한 교차지연 상관패널 분석

결 과

우울증상과 스트레스 사건간의 양방향적 관계

주요 스트레스 사건과 우울 증상간의 관계에 대하여 교차지연 상관패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스트레스 사건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r=.68, p<.01$)과 우울 증상의 자기상관($r=.54, p<.01$)이 높게 나타나 시간적으로 강한 안정성을 보였고, 시기 1의 동시적 상관(synchronous correlation)($r=.17, p<.01$)과 시기 2의 동시적 상관($r=.21, p<.01$)이 중간 정도의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주요 스트레스 사건과 우울증상간의 교차상관(cross-lagged correlation)은 시기 1의 우울 증상과 시기 2의 스트레스 사건의 교차상관($r=.18, p<.05$), 그리고 시기1의 스트레스 사건과 시기 2의 우울 증상의 교차상관($r=.14, p<.05$)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우울집단과 정상집단의 스트레스 사건 비교

기존 연구에서 임상적으로 우울한 집단을 나누는 절단점수로 밝혀진 BDI 점수 16점에

근거하여(이영호, 송종용, 1991), 시기 1에 측정된 BDI 점수에 따라 우울집단과 정상집단을 나누었고, 이 두 집단이 1개월 후 각 스트레스 측정치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 하였다. 우울 집단이 보다 많은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할 것이라는 방향적 예측이 있으므로 일방향 검증으로 MANOVA를 실시하였다. 총 참가자 224명 중 우울 집단이 32명, 정상 집단이 192명으로 분류 되었고, 전체 참가자의 BDI 평균은 9.58점(표준편차 6.72점), 우울 집단의 BDI 평균은 22.02점(표준편차 5.84점), 정상 집단의 BDI 평균은 7.54점(표준편차 4.18점)이었다.

시기 1에 분류된 우울 집단과 정상 집단이 그 이후 1개월 동안 경험한 주요 스트레스 사건의 수를 비교한 결과, 독립적 사건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체 스트레스 사건에 있어서는 우울집단의 평균이 5.88, 정상집단의 평균이 4.39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의존적 사건에 있어서는 우울 집단의 평균이 4.31, 정상집단의 평균이 3.19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우울 집단이 정상 집단보다 더 많은 의존적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각 $F(1, 223)=1.08, m., F(1, 223)=3.25, p<.05, F(1,$

표 1. 우울집단과 정상집단의 주요 스트레스 사건 수 평균 및 집단차

주요 스트레스 사건	우울집단 (n=32) 평균(SD)	정상집단 (n=192) 평균(SD)	F
전체 사건	5.88 (5.79)	4.39 (4.04)	3.25*
독립적 사건	1.56 (1.93)	1.19 (1.85)	1.08
의존적 사건	4.31 (4.26)	3.19 (2.96)	3.42*
대인관계 갈등 사건	1.78 (2.31)	1.11 (1.49)	4.61*

* $p < .05$.

223)=3.42, $p < .05$. Hammen(1991)의 연구에 따라 의존적 사건 중, 가족과의 언쟁이나 불화, 친구 및 주변 사람들과의 불화 등 대인관계 갈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두 집단의 차이를 검토한 결과, 대인관계 갈등 사건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 223)=4.61, p < .01$. 우울집단의 평균이 1.78, 정상집단의 평균이 1.11로 우울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이후 1개월 동안 더 많은 대인관계 갈등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울집단과 정상집단이 1개월 동안 경험한 주요 스트레스 사건 중 독립적 사건, 의존적 사건 및 대인관계 갈등 사건의 빈도수 평균과 각 사건들에 있어서 두 집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표 1에 제시 하였다.

스트레스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증상 하위요인

특정 우울증상이 스트레스 사건에 미치는 차별적인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BDI의 요인 구조에 대해서 Byrne과 Baron(1983)이 제안한

위계적 3요인 모형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 모형에서 1차 요인은 우울증이고, 2차 요인은 부정적 태도, 수행 곤란, 신체적 증상이다. 국내에서는 김정호 등(2002)이 정신과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이 모형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여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엄격한 기준의 χ^2 검증을 제외하고 여러 적합도 지수들이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여, 위계적 3요인 모형은 전반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홍세희, 2000), NFI=.81, CFI=.85, TLI=.73, RMSEA=.05.

BDI의 하위요인을 확인한 후, 각 하위요인이 스트레스 사건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어떤 우울증상도 독립적 사건을 예측하지 못했으나, 부정적 태도가 의존적 사건과 대인관계 갈등 사건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적 사건: $\beta=.13, t=2.76, p < .05$; 대인관계 갈등 사건: $\beta=.22, t=3.33, p < .01$. 부정적 태도가 의존적 사건을 3.3%, 대인관계 갈등 사건을 4.8% 예측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울 증상과 스트레스 사건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기술의 중재효과

사회적 기술이 우울 증상과 스트레스 사건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중재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시기 2의 스트레스 사건 측정치를 준거변인으로 하고, 시기 1의 스트레스 사건을 통제하기 위해 1단계에 시기 1의 스트레스 사건을 입력하고, 2단계에 우울 증상(시기 1)과 사회적 기술을 입력 하였으며, 3단계에는

표 2. 우울 증상 하위요인이 스트레스 사건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R^2	ΔR^2	ΔF
주요 스트레스 사건 의존적 사건	부정적 태도	.13*	.033		7.60*
	신체증상	.05	.036	.003	0.64
	수행 어려움	.05	.037	.001	0.28
주요 스트레스 사건 대인관계 갈등 사건	부정적 태도	.22**	.048		11.06**
	신체증상	.07	.053	.005	1.20
	수행 어려움	.09	.058	.005	1.24

* $p < .05$. ** $p < .01$.

우울 증상(시기 1)과 사회적 기술의 상호작용을 입력한 후, 우울 증상과 사회적 기술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가를 검토하였다. 또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Aiken과 West(1981)가 제안한 바대로, 중재변인 값이 높은 집단(1 표준편차 이상)과 낮은 집단(1 표준편차 이하) 각각에 대해 회귀선을 그려서 중재변인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였다. 회귀선의 기울기는 중재변인이 우울 증상이 스트레스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buffering) 효과를 가지는가, 아니면 우울 증상이 스트레스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exacerbating) 효과를 가지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중재변인이, 우울 증상이 스트레스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이라면, 중재변인이 낮은 집단에서 회귀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서 우울 증상과 스트레스 사건 간의 연관이 강할 것이고, 반대로 중재변인이 우울 증상이 스트레스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키는 취약성 요인(vulnerability factor)이라면 중재변인이 높은 집단에서 회귀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다. 분석 결과, 우울 증상과 사회적 기술의 상호작용 변인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

아, 우울 증상과 스트레스 사건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기술의 중재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beta = .76$, $t = 0.88$, $n.s.$ 이러한 결과는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의존적 사건이나 대인관계 갈등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의존적 사건: $\beta = .95$, $t = 1.11$, $n.s.$ 대인관계 갈등 사건: $\beta = .58$, $t = 0.68$, $n.s.$ 사회적 기술의 총점은 우울 증상이 스트레스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변인으로 밝혀지지 못했지만, 사회적 기술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표현성과 사회적 표현성, 사회적 조절성이 우울 증상과 의존적 사건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 증상 \times 정서적 표현성, 우울 증상 \times 사회적 표현성이 유의하게 의존적 사건을 예측했으며, 각각 $\beta = .82$, $t = 2.17$, $p < .05$; $\beta = .64$, $t = 1.83$, $p < .05$, 우울 증상 \times 사회적 조절성은 상호작용의 경향성이 나타났다, $\beta = .60$, $t = 1.93$, $p < .10$. 대인관계 갈등 사건 범주에 있어서는, 우울 증상 \times 정서적 표현성, 우울 증상 \times 정서적 조절성이 유의하게 나타나, 정서적 표현성과 정서적 조절성의 중재효과가 검증되었다, 각각 $\beta = 1.01$, $t = 2.49$, $p < .05$; $\beta = .95$, $t = 1.96$, $p < .05$. 표 3에 우울 증상과 스트레스 사건 간

표 3. 우울 증상과 스트레스 사건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기술 하위척도의 중재효과 (1)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ΔR^2	ΔF
주요 스트레스 사건 의존적 사건 (t2)	1단계: 통제 의존적 사건(t1)	.58***	.33	.33	96.1***
	2단계: 주효과 우울 (t1) 정서적 표현성	.18† .07	.35	.015	3.03†
	3단계: 상호작용 효과 우울x정서적 표현성	.82*	.38	.027	5.41*
주요 스트레스 사건 의존적 사건 (t2)	1단계: 통제 의존적 사건(t1)	.58***	.33	.33	96.1***
	2단계: 주효과 우울(t1) 사회적 표현성	.07 .02	.34	.012	.84
	3단계: 상호작용 효과 우울x사회적 표현성	.64*	.36	.017	4.3*
주요 스트레스 사건 의존적 사건 (t2)	1단계: 통제 의존적 사건(t1)	.58***	.33	.33	96.1***
	2단계: 주효과 우울(t1) 사회적 조절성	.06 -.03	.34	.006	.96
	3단계: 상호작용 효과 우울x사회적 조절성	.60†	.36	.014†	3.7†
주요 스트레스 사건 대인관계 갈등 사건 (t2)	1단계: 통제 대인관계 갈등사건(t1)	.48***	.22	.22	62.04**
	2단계: 주효과 우울(t1) 정서적 표현성	.13 .10†	.24	.021	2.99†
	3단계: 상호작용 효과 우울x정서적 표현성	1.01*	.27	.032	5.86*
주요 스트레스 사건 대인관계 갈등 사건 (t2)	1단계: 통제 대인관계 갈등사건(t2)	.48***	.22	.22	62.04**
	2단계: 주효과 우울(t1) 정서적 조절성	.21** .18**	.071	.071	8.49**
	3단계: 상호작용 효과 우울x정서적 조절성	.95*	.087	.016	3.82*

* $p < .05$. ** $p < .01$. *** $p < .001$. † $p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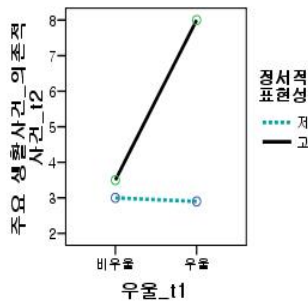


그림 2. 우울x정서적 표현성이 의존적 사건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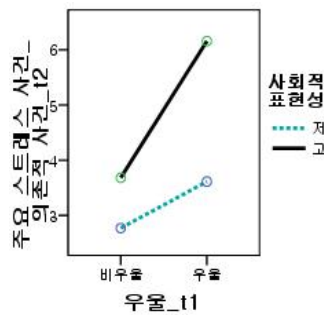


그림 3. 우울x사회적 표현성이 의존적 사건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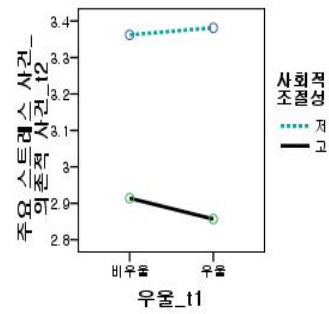


그림 4. 우울x사회적 조절성이 의존적 사건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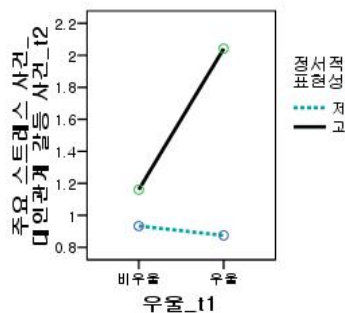


그림 5. 우울x정서적 표현성이 대인관계 갈등사건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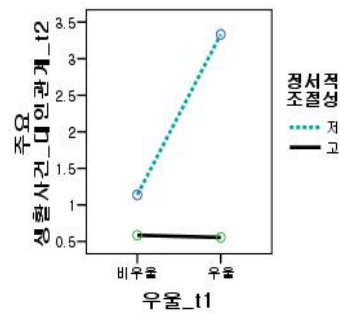


그림 6. 우울x정서적 조절성이 대인관계 갈등사건에 미치는 영향

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기술 하위척도의 중재 효과를 검증하는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유의미한 중재효과가 밝혀진 각 하위척도가 우울 증상이 스트레스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인지 우울 증상이 스트레스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키는 취약성 요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척도 별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회귀선을 그려보았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정서적 표현성과 사회적 표현성은 높은 집단에서 우울 증상과 스트레스 사건 간의 관

계가 강하게 나타나, 취약성 요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그림 4에서 제시한 사회적 조절성의 경우, 사회적 조절성이 높은 집단에서 우울 증상과 스트레스 사건 간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났지만 사회적 조절성이 낮은 집단은 우울 증상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존적 사건을 매우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취약성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대인관계 갈등 사건에 있어서는 정서적 표현성이 높은 집단에서 우울 증상과 대인관계 갈등 사건 간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 취약성 요인임이 밝혀졌고, 정서적 조절성이 낮은 집단에서 우울 증

상과 대인관계 갈등 사건 간의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 보호요인임이 밝혀졌다. 그림 5와 그림 6에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스트레스 유발 가설을 검증하고 그 기제를 확인하여, 우울 증상의 지속과 만성화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설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울 증상과 주요 스트레스 사건을 1개월 간격으로 측정하여 교차지연 상관패널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스트레스 사건(시기1)이 우울 증상(시기2)을 예측하여 스트레스 노출 관점을 지지하였고, 우울 증상(시기1)이 스트레스 사건(시기2)을 예측해서 스트레스 유발 관점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교차지연 상관패널 분석결과는 스트레스 노출 관점이나 스트레스 유발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차지연 상관패널 분석에서 자기상관이 높으면 교차지연 상관이 함축하는 인과적 관계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기상관으로 인한 변산이 교차지연 상관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Kenny, 1975).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스트레스 유발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합한 방법은, 전향적(prospective) 방법을 사용하되 Hammen(1991)이 채택한 방식대로 스트레스 사건을 의존적 사건과 독립적 사건으로 구분하여 각 사건에 있어서 우울집단과 정상집단의 집단차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울한 사람들이 이후 1개월 동안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에 있어서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가

를 검토하였을 때, 독립적 사건에 있어서는 우울집단과 정상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우울집단이 정상집단보다 더 많은 의존적 사건을 경험하고, 의존적 사건 중에서 대인관계 갈등과 관련된 사건을 더 많이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한 사람들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후 1개월 동안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이 양적인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외부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는 운명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우울한 사람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지만, 우울한 사람들은 이후 1개월 동안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일부분이라도 스스로가 사건의 발생에 기여하는 경우와 같은 의존적 사건과 대인관계 갈등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Hammen의 스트레스 유발 가설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우울한 사람이 단순히 스트레스 생활 사건의 “수동적 수취인(passive recipients)”이 아니라 스스로 스트레스 상황 및 환경을 구성하는 데 일부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우울증과 스트레스 간의 악순환을 영속화함으로써 우울증의 만성화와 악화에 관여함을 시사 하는 것이다. 이는 Coyne(1987)이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 관점들이 우울한 사람들의 왜곡된 사고 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과장된 것일 수 있다”(p. 351)라고 주장하듯이, 우울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환경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적인 지각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기 다른 우울증상은 스트레스 사건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적 태도, 수행 어려움, 신체 증상이라는 세 요인 중 부정적 태도가 스트레스 사건을 설명

하는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증이라는 정신병리가 이질적인 집합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것이며, 스트레스 사건이 여러 우울증상 중 인지적인 요인과 관련된 증상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Monroe, Harkness, Simons, & Thase, 2000)와 일관된다. 이와 함께 우울증상 중에서 부정적 태도와 같은 인지적 요인이 스트레스 사건을 상당부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울증에 있어서 인지적 요인이 증상의 만성화와 악화에 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스트레스 유발 모델이나 대인관계 모델이 주장하는 바, 즉 우울한 사람들이 보고하는 부정적인 환경이 부정적 태도에 의한 왜곡된 지각이라기보다 현실적인 것이라는 주장과 상충되는 듯이 보이지만, 이 두 결과는 상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울한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우울한 사람의 부정적인 지각이 상호적으로(reciprocally) 영향을 주고 받는 악순환의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울한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부정적인 현실은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확증시키며 그렇게 확증된 그들의 부정적 태도는 더욱 역기능적인 환경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 현실과 부정적 태도의 이와 같은 악순환은 우울 증상의 지속과 악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울 증상과 스트레스 사건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기술의 중재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적 기술의 하위척도 중 정서적 표현성과 사회적 표현성 및 사회적 조절성이 우울 증상과 의존적 사건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정서적 표현성과 정서적 조절성이 우울 증상과 대인관

계 갈등 사건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기술이라는 개념이 단일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다차원의(multidimensional) 개념이라는 기존의 사회 기술 이론가들의 주장과 일관되는 것으로, 우울한 사람이 스스로 스트레스 사건을 발생시키는데 기여하고 부정적인 대인관계 맥락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단일한 점수로 포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로서의 사회적 기술의 결합보다는 사회적 기술이라는 넓은 구성개념하의 특정 하위 기술이 하는 역할을 반영하는 것이다.

중재효과가 검증된 각 하위척도들에 있어서, 각 하위척도별로 우울 증상과 스트레스 사건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정서적 표현성과 사회적 표현성은 우울 증상과 스트레스 사건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취약성 요인이고, 정서적 조절성은 우울 증상과 스트레스 사건의 관계를 완화하는 보호 요인이었다. 정서적 표현성은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자신이 느끼는 정서 상태를 표현하는 기술을 반영하고, 사회적 표현성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러한 정서적 표현성과 사회적 표현성이, 우울 증상이 스트레스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 하는 취약성 요인이라는 것은 우울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그리고 부적절하게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드러내어 부정적 인상을 남기고 그 결과 부정적인 대인관계 맥락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한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나 실험 상황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지나치게 자기의

감정이나 어려움과 관련된 주제에 몰두하고 부적절하게 자신을 드러내서, 상호작용하는 타인이 우울한 사람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게 만든다는 기존 연구결과(Basco, Prager, Pita, Tamir, & Stephens, 1992; Segrin & Abramson, 1994)와 연관 된다. 한편, 정서적 조절성은 우울 증상과 스트레스 사건 간의 관계를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정적인 정서가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황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때 그 부정적인 정서에 몰두하여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그 정서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역기능적 대인관계 맥락을 구성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우울한 사람들의 과도한 정서적 표현성과 사회적 표현성, 그리고 정서적 조절성의 결여가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본 연구결과는 Coyne이 우울증에 대한 상호작용 이론을 주장하면서 제안한 우울한 사람들의 문제 행동인 과도한 재확신 추구 행동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우울한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지에 관하여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확신을 얻고자 하고 위로를 받으려 하면서도, 타인이 제공하는 지지의 진정성을 의심하여 과도하고 끊임없이 재확신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타인을 지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이와 같은 행동은 과도한 정서적 표현성과 사회적 표현성, 그리고 정서적 조절성의 결여라는 특정 사회적 기술의 문제로 인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단기 종단 연구를 통해 우울한 사람이 스스로 스트레스 사건을 만들어내 우울 증상을 지속시킨다는 스트레스 유발 가설을 검증하고, 스트레스 유발 과정에서 우울한

사람들이 타인에게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을 언어적·비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조절하는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우울 증상과 스트레스 사건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그 기제를 제안 했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스트레스 사건의 측정에 있어서 면접과 같은 객관적 평정이 아닌 주관적 보고를 사용함으로써 스트레스 사건의 측정치가 우울한 사람의 부정적 편향을 반영하고 참가자마다 각기 다른 경험을 같은 문항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 사회적 기술 또한 자기보고 질문지를 통해 측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방법론적 한계는 우울한 사람의 부정적 편향에 의한 왜곡의 가능성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울한 사람의 사회적 기술 결함이 관계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인관계 관련 연구에서 큰 제한점일 수 있다. Segrin과 Flora(1998)의 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우울한 사람들의 사회적 결함은 우울한 사람과 타인이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실질적인 관계의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우울한 사람들의 대인관계 맥락 및 사회적 기술 결함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적이고 역동적인 양자관계(dyads)를 반영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대상과 관련하여, 참가자를 대학생으로 하였고 참가자 중 여성과 20대 초반에 해당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넷째, 사회적 기술 척도(SSI)는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집단에 적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1개월 간의 단기 종단 연구를 통해 우울한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스트레스 경험을 유발하는 데 기여하고, 이로 인해 다시 이후에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우울증의 지속과 악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제안할 수 있었다는 이론적 및 임상적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 권정혜 (2002). 우울증 환자의 역기능적 대인관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3), 595-607.
- 김정호, 조용래, 박상학, 김학렬, 김상훈, 표경식 (2002). 한국판 Beck Depression Inventory의 요인구조: 임상 표본을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47-258.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스트레스 사건, 사건 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9-113.
- 임승락, 권정혜 (1998). 우울증상이 부부 간의 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2), 17-31.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drian, C., & Hammen, C. (1993). Stress exposure and stress generation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354-359.
- Aiken, L., & West, S.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lloy, L. B., Harlage, S., & Abramson, L. Y. (1988). Testing the cognitive diathesis-stress theories of depression: Issues of research design,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In L.B. Alloy (Ed.), *Cognitive processes in depression*(pp.31-76). New York: Guilford.
- Bar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sco, M. R., Prager, K. J., Pita, J. M., Tamir, L. M., & Stephens, J. J. (1992). Communication and intimacy in the marriages of depressed patie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6, 184-194.
- Benazon, N. R., & Coyne, J. C. (2000). Living with a depressed spous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 71-79
- Brown, G. W., & Harris, T. O. (1978). *Social origins of depression: A study of psychiatric disorder in women*. New York: Free Press.
- Byrne, B. M., & Baron, P. (1993).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Testing and cross-validating an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nonclinical adolescents.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26, 164-178.
- Coyne, J. C. (1976a). Toward an interactional description of depression. *Psychiatry*, 39, 28-40.
- Coyne, J. C. (1976b). Depression and the response

- of oth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186-193.
- Coyne, J. C., Kessler, R. C., Tal, M., Turnbull, J., Wortman, C. B., & Greden, J. F. (1987). Living with a depressed pers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347-352.
- Chun, C. A., Cronkite, R. C., Moos, R. H. (2004). Stress generation in depressed patients and community control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390-412.
- Daley, S. E., Hammen, C., Burge, D., Davila, J., Paley, B., Lindberg, N., & Herzberg, D. S. (1997). Predictors of the generation of episodic stress: A longitudinal study of late adolescent wom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251-259.
- Davila, J., Hammen, C., Burge, D., Paley, B., & Daley, S. E. (1995). Poor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s a mechanism of stress generation in depression among adolescent wom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592-600.
- Davila, J., Bradbury, T. N., Cohan, C. L., & Tochluk, S. (1997). Marital functioning and depressive symptoms: Evidence for a stress generation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849-861.
- Dow, M. G., & Craighead, W. E. (1987). Social inadequacy and depression: Overt behavior and self-evaluation process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5, 99-113.
- Hammen, C. (1991). Generation of stress in the course of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555-561.
- Hammen, C. (2002). Stress generation in depression: Reflections on origins,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 1065-1082.
- Harkness, K. L., & Luther, J. (2001). Clinical risk factors for the generation of life events in majo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 564-572.
- Joiner, T. E., & Metalsky, G. I. (1995). A prospective test of an integrative interpersonal theory of depression: A naturalistic study of college roomm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78-788.
- Joiner, T. E., Jr., Wingate, L., & Oramendi, A. (2005). An interpersonal addendum to the hopelessness theory of depression: Hopelessness as a stress and depression generator.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 649-664.
- Kendler, K. S., Karkowski, L. M., & Prescott, C. A. (1999).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the onset of major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 837-848.
- Kenny, D. A. (1975). Cross-lagged panel correlation: A test for spuriousness. *Psychological Bulletin*, 82, 887-903.
- Kessler, R. C. (1997). The effects of stressful life events on dep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191-224.
- Lewinsohn, P. M. (1974). A behavioral approach to depression. In R. J. Friedman & M. Katz (Eds.),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pp.157-185). Washington, DC: Winston-Wiley.
- Lewinsohn, P. M., Mischel, W., Chaplin, W., & Barton, R. (1980). Social competence and

- depression: The role of illusory self-percep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9, 203-212.
- Mazure, C. M. (1998). Life stressors as risk factors in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5, 291-313.
- Monroe, S. M., Harkness, K. L., Simons, A. D., & Thase, M. E. (2001). Life stress and the symptoms of major depressio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9, 168-175.
- Potthoff, J. G., Holahan, C. J. & Joiner, T. E. (1995). Reassurance seeking, stress gener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n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64-670.
- Riggio, R. E. (1986). Assessment of basic social skil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649-660.
- Segrin, C., (2000). Social skills deficits associated with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 379-403.
- Segrin, C., & Abramson, L. Y. (1994). Negative reactions to depressive behavior: A communication theories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655-668.
- Segrin, C. & Dillard, J. P. (1992). The interactional theory of depression: A meta-analysis of the research literatur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1, 43-70.
- Segrin, C., & Flora, J. (1998). Depression and verbal behavior in conversations with friends and strangers.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7, 494-505.
- Simons, A. D., Angell, K. L., Monroe, S. M., & Thase, M. E. (1993). Cognition and life stress in depression: Cognitive factors and the definition, rating, and generation of negative life ev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584-591.

원 고 접 수 일 : 2008. 6. 16.

수정원고접수일 : 2008. 11. 10.

게재결정일 : 2008. 11. 19.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Social Skills on Stressful Life Events

Young-Ran Kim

Department of Psychiatry
Ewha Medical Center Mokdong Hospital

Young 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was a prospective study designed to test the stress generation theory which suggests that depression predicts stressful life events and to investigate the role of social skills as a mechanism of stress-generation in depression. The participants were 224 under-graduate students who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about major stressful life events, depression and social skills on two occasions, one month apart.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ross-lagged panel correlation analysis, M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Stressful events predicted subsequent depression, and depression predicted subsequent stressful events.(2) Depressed people had more dependent events and more interpersonal events after one month than non-depressed people, but depressed people did not have more independent events than non-depressed people. (3) In terms of the three factors on the BDI, negative attitudes towards self predicted subsequent stressful life events more than the other two factors, performance impairment and somatic disturbance. (4) Although social skills in general were not shown to have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bsequent stressful events, moderating effects were found for various sub-factors of social skills such as emotional expressivity, social expressivity, emotional control and social control. The clinical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depression, stressful life events, social skills, stress-generation theory